FA컵 도전 멈춘 광주, 이젠 리그 우승 향해 '올인'

16강전에서 부천에 1-2 패 K리그2 28일 부산 원정 총력 전남도 승부차기 패배로 탈락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의 FA컵 도전이 16강 에서 멈췄다. 두 팀은 이제 리그 우승을 위해 '올

광주가 1위 질주를 위해 다시 그라운드에 오른 다. 광주는 지난 2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 천FC와의 FA컵 16강전에서 2-1패를 기록했다.

후반 3분 김승우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막판 역전을 노렸지만, 경기 는 아쉬운 패배로 끝났다.

FA컵 도전을 끝낸 광주는 28일 오후 4시 부산아 이파크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우승을 위한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FA컵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핵심 선수들이 충 분히 휴식을 취한 만큼 팀을 정비해 1위 독주를 이 어가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현재 11승 2무 2패(승점 35)를 기록, 한 경기를 더 치른 부천(9승 3무 4패·승점 30)에 승점 5점 차로 앞선 1위다.

'공격의 핵'엄지성이 2022 AFC U-23 챔피언 십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 경기에 나설 수 없지만 하 승운과 마이키 등 측면 자원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하승운은 리그에서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1골 1도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가운 복귀도 예고됐다.

시즌 초반 6경기 나와 3골을 터트렸던 최전방 공 격수 이건희가 부상 복귀 후 오랜만에 출격을 준비하 고 있다. 이건희의 부지런한 움직임과 연계플레이로 광주는 더 강력한 공격진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 2승 4무 10패(승점 10)를 기록, 10위에 올라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1무 2패) 부진 속에 팀 전 력의 핵심인 박정인과 최준도 U-23 대표팀 차출로 빠진 상태다.

전력 누수는 있지만 안병준과 박종우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이상헌, 강윤구 등 실력이 출중한 선 수들이 즐비하다.

광주는 안영규-김재봉-김현훈으로 이어지는 견 고한 스리백 라인과 이순민, 박한빈, 정호연 등 미 드필더진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의 공세를 막 고, 빠른 역습으로 승점 3점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리그 승리로 패배의 충격을 지워야 한다. 전남은 지난 25일 안방에서 열린 부산교통공사 와의 FA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4-5로 졌다.

'디펜딩 챔피언' 전남은 상대의 자책골과 정우빈 의 프로 첫 골을 바탕으로 2-1로 리드를 잡았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리그 경기에 집중하게 된 전남은 승리가 절실하 다. 전남은 앞선 17라운드 안산과의 홈경기에서 14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도 2-3

연승에 실패한 전남은 14경기를 치르며 승점 16 점(4승 4무 6패)으로 8위에 랭크됐다.

전남은 29일 오후 6시 30분 이순신종합운동장에 서 18라운드 충남아산과의 경기에 나선다.

충남아산은 현재 승점 21점(5승 6무 4패)로 5 위. 충남아산은 전방압박을 통한 상대 공격 차단과 과감한 슈팅을 앞세워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은 플라나를 중심으로 승리를 다짐하고 있 다. 최근 전남 공격 흐름이 좋다. 유헤이, 전승민, 이 석현의 탈압박을 통해 전방으로 연결되는 볼을 플라 나, 박인혁, 이중민이 슈팅으로 연결하고 있다.

중위권 도약을 위해 남다른 각오로 원정길에 나 서는 전남이 승리를 안고 돌아올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FA컵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28일 부산 원정에 나서 리그 1위 질주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 다. 사진은 지난 경남 원정에서 허율(왼쪽에서 두 번째)이 공을 다투는 모습. 〈한국프로축구 연맹 제공〉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이슬기·박세림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 출전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주니어 국가대표 2명을 배출했다.

광주시체육회(회장이상동)는 "광주도시공사 이슬기(LB)와 박세림(LW)이 슬로베니아에 서 열리는 제23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27일 밝혔

이슬기는 조대여고를 졸업했으며 2021 여자 신 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6순위로 광주에 입단한 실업 2년 차다. 171cm의 큰 키를 자랑하며 1:1 돌 파와 중거리 슛이 강점인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조대여고 재학시절인 2019년 아시아여자청소년 선수권대회에 청소년 대표로 참가해 팀이 우승하 는 데 일조했다.



박세림은 경남체고를 졸업하고 올해 입단한 루 키다. 지난해 제76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에서 경남체고의 준우승을 이끌고 우수선수상을

이들은 이달 말부터 SK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

되는 국가대표 합동훈련에 참가한다.

이들을 비롯해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은 4 명의 국가대표를 보유한 팀이 됐다.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된 강경민과 원선필은 다 음 달 11~13일 예정된 한일정기전을 앞두고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상동 회장은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선수들이 매년 국가 대표로 선발돼 광주의 명예를 높이고 있다"며 "광 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더 좋은 팀으로 성장해 훌 륭한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2021~2022 SK핸드볼코 리아리그에서 정규리그 2위, 챔피언결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무안주민들이 남악중앙공원에서 열린 해달맞이 생활체조 교실에 참가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해달맞이 체조교실 16곳 운영

전남도체육회가 올해 해달맞이 체조교실 16곳 을 운영한다.

전남도체육회(회장직무대행 최기동)는 "최근 대한체육회가 공모한 2022년 해달맞이 체조교실 사업에서 전남도체육회가 신청한 16곳이 선정됐 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8938만원이다.

도체육회는 최근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지난 해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목포 5곳, 순천・영광 3 곳, 나주 2곳, 영암·무안·장성 1곳 등 7개 시·군에 사업 추진 예산을 배정했다.

해달맞이 체조교실은 새벽(6~9시)·저녁(18~ 21시간) 시간대에 주민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생활체육 인구가 많거나 주민들이 즐겨

찾는 아파트 단지, 약수터, 초·중·고등학교 등 광 장에서 진행된다. 해당 장소에 지도자가 배정돼 체육 활동을 진행한다.

최기동 도체육회장 직무대행은 "2022년 해달맞 이 체조교실이 전남 도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인프 라 구축과 더불어 도민의 건강 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거주시 인근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발굴, 스포 츠로 건강한 전라남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 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현역 최고' 톰프슨 vs '신성' 리처드슨 다이아몬드리그 여자 육상 100m 대결

도쿄올림픽 단거리 3관왕이자 여 자 100m 역대 2위 기록을 보유한 일레인 톰프슨(30·자메이카)이 2022 프리폰테인 클래식 세계육상 연맹다이아몬드리그여자 100 m 출 전을 확정했다.

과감한 발언과 행동으로 '열성 팬'과 '안티 팬'을 동시에 거느린 '신 성' 셔캐리 리처드슨(22·미국)도 100 m 출발선에 선다.

올해 프리폰테인 대회는 한국시간 으로 28~29일까지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다. 여자 100m 결선은 29일에 출발 총성이 울린다.

2021년 8월 23일에 열린 프리폰 테인 여자 100m 결선에서 톰프슨은 10초54의 역대 2위 기록으로 우승

'살아있는 전설'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 (36)도 10초73의 뛰어난 기록을 냈지만, 톰프슨 의 역주가 더 대단했다.

반면 리처드슨은 11초14의 초라한 기록으로 출 전한 9명 중 최하위에 그쳤다.

리처드슨은 초반 레이스에서 밀리자, 의욕을 잃 은 듯 속도를 줄였고 개인 최고 10초72에 0.42초 나 느린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기록과 이력을 보면 톰프슨은 리처드슨을 크게 앞선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100 m와 200m에서 우승한 톰프슨은 이후 부상과 부진에 시달렸지만,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100 m, 200 m, 400 m계주를 석권하며 '트랙 퀸'의 입지를

도쿄올림픽 후 처음 치른 대회였던 2021 프리폰 테인 대회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10초6의 벽을 넘 은 여자 스프린터가 됐다.

여자 100m 세계기록은 지금은 고인이 된 플로 렌스 그리피스 조이너가 1988년 7월 17일에 작성 한 10초49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일레인 톰프슨



그리피스 조이너 이후 여자 스프린터들은 10초 6의 벽을 돌파하고자 애썼다.

카멀리타 지터(10초64)와 매리언 존스(10초 65) 등 당대 최고의 스프린터도 10초6대 벽은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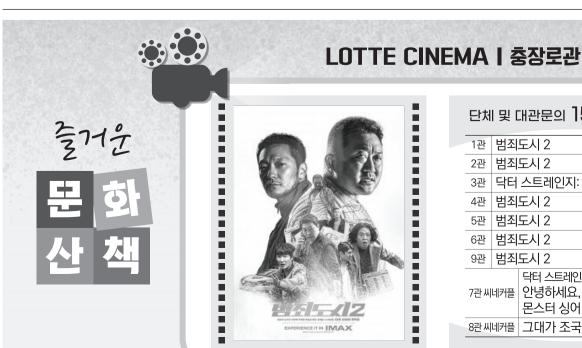
프레이저-프라이스는 2021년 6월 6일 10초63 의 기록을 작성하며 '선수 기준' 역대 2위로 올라

하지만, 톰프슨이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그리 피스 조이너 이후 최고 스프린터로 자리매김했다.

톰프슨은 도쿄올림픽에서 10초61의 올림픽 기 록(종전 1988년 서울, 그리피스 조이너의 10초 62)을 세우더니, 프리폰테인 클래식에서 10초6의 벽도 넘어섰다.

프리폰테인 여자 100m에는 도쿄올림픽 동메달 리스트 셰리카 잭슨(28·자메이카), 아프리카 기 록 보유자 마리-호세 타루(34·코트디부아르), 유 럽의 자존심 디아 어셔-스미스(27·영국) 등 세계 적인 스프린터도 출발선에 선다.

10초67의 2022년 여자 100m 세계 1위 기록을 보유한 프레이저-프라이스는 이번 대회에는 200 m에 출전한다.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 2

2관 범죄도시 2 3관 |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4관 범죄도시 2

5관 범죄도시 2

6관 범죄도시 2 9관 범죄도시 2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7관씨네커플 안녕하세요, 서울괴담, 몬스터 싱어: 매직 인 파리

8관씨네커플 그대가 조국, 오마주



GAC기획공연 포커스 Would You Follow Maytree?:) 일시: 2022.06.15.(수)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문의 : 062-613-823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2022.05.03.(화)~31.(화)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

